

어머니 학교  
with

#어머니학교 #어쩌다엄마 #주님제가어머니입니다  
#성경적부모교실 #기도하는엄마 #말씀먹이는엄마  
#주님과함께 #함께울고함께웃는 #열방교회여선교회  
#언택트(Untact)시대 #온택트(Ontact)하기 #With

“서로 나눈 이야기는 이 자리에 두고 가십시오.”

# 주가 일하시네

Kang Score

이혁진

1. 날이 저 물 어 - 갈 때 - 빈 들 에 서 걸 - 을 때 - 그 때  
 2. 우리 모 인 이 - 곳 에 - 주 님 합 께 게 - 시 네 - 누 리

가 하 나 님 의 때 - 내 힘 으 로 안 - 될 때 - 빈 손  
 네 아 버 지 은 혜 - 적은 떡 과 물 - 고 기 - 내 모

으 로 걸 - 을 때 - 내 가 고 백 해 - 여 호 와 이 래 - 날 이  
 든 걸 드 - 릴 때 - 모 두 고 백 해 - 여 호 와 이 래 - 우리

주 가 일 하 시 네 - 주 가 일 하 시 네 - 주 께 아 끼 지 않 - 는 자 에 게

- 주 가 일 하 시 네 - 주 가 일 하 시 네 - 신 뢰 하 며 걷 - 는 자 - 에 게 -



‘엄마’라는 말



# 나의 엄마

강경수



엄마.



엄마.



## 연령대별로 엄마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감정



5 anos: "Mamãe, te amo."  
11 anos: "Mãe, não enche."  
16 anos: "Minha mãe é tão irritante."  
19 anos: "Eu quero sair de casa."  
25 anos: "Mãe, vc tinha razão."  
30 anos: "Eu quero voltar pra casa da minha mãe."  
50 anos: "Eu não quero perder a minha mãe."  
70 anos: "Eu abriria mão de TUDO pra ter minha mãe aqui comigo."...  
Pense bem antes de deixar sua Mãe triste, vc só tem uma mãe.  
Compartilhe se você ama sua MÃE!

5살: 엄마 사랑해요

11살: 엄마 시끄러워

16살: 짜증나 귀찮아

19살: 이 집을 나가고 싶어

25살: 엄마가 말한 대로 였어

30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50살: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70살: 엄마가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아

## 우리 엄마는 감자꽃이다

우리 엄마는 감자꽃이다.

맛있는 건 모두 다

땅속에 있는 동글동글한 자식들에게 나눠 주고

여름 땀별에 노랗게 시들어가는

하얀 감자꽃이다.



인생은 소풍이다

# 보물찾기

글 이철환 · 그림 윤기훈

아홉도 일도 일도  
순환도 일도 일도

300만 독자를 울린 『연탄길』 『곰보빵』의 작가  
이철환이 전하는 감동의 이야기 선물

진짜 사람 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 — 김동혁(시인)  
고단한 세상살이에 따르는 한줄기 찬란한 영혼의 빛 — 정호승(시인)  
작가 이철환이 품어 온 작고 단단한 보물상자를 만나다 — 박민규(소설가)

꽃상



## 우리 엄마는 감자꽃이다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았다.

무너진 꿈으로 절망했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린 딸아이가 열이 올라

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도

나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의자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

신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의자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다.

의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 아픔을 감추며 웃고 있는 의자는,

바로 엄마였다.

어느 날,

엄마가 식탁 위에 남기고 간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나왔다.

철환아, 엄마 병원 가따온다.

콩나물국 랜지에 대퍼먹고,

밖에 나가서 점심 꼭 머거라.

네가 끼니를 걸르면, 애미 가슴은 물어진다.

엄마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 드리고 싶었다.

내 삶의 굵이굵이마다,

출렁거릴 때마다

나를 흐르게 한 것은 엄마였다. 엄마의 눈물이었다.

엄마가 있었기에

너와 나는 캄캄한 시간을 견뎌 낼 수 있었다.

끼니를 걸렀다는 자식의 한 마디 말에도

이 세상 모든 엄마의 가슴은 무너진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에는 엄마의 눈물이 스며 있다.



#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Pastor Paik

지금 보니 겨레가 형님 젊었을 때와 판박이네요.(겨레야 미안😓)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전우철

넌 이제 겨레한테 죽었다!!! ㅋㅋㅋㅋ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답글 달기...



권혁민

사모님은 정말 미인이시고, 목사님은 겨레 목사 똑 닮이네요~ Isaac Kyuh Rae Jun ㅋㅋㅋㅋ😄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전우철

권목사님도 겨레에게 많이 시달리시겠어요. 가급적 이 글을 못보게 하세요^^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권혁민

전우철 서로 아웅다웅하는 사이라서 괜찮습니다😄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 성경적 인간관

### 1.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들에게 복을 주시며”(창세기 1:27~28)








## 성경적 인간관

### 2.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로마서 1:28)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로마서 3:10~12)





## 성경적 인간관

### 2.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7)



### 3. 세상에는 악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들





## 1.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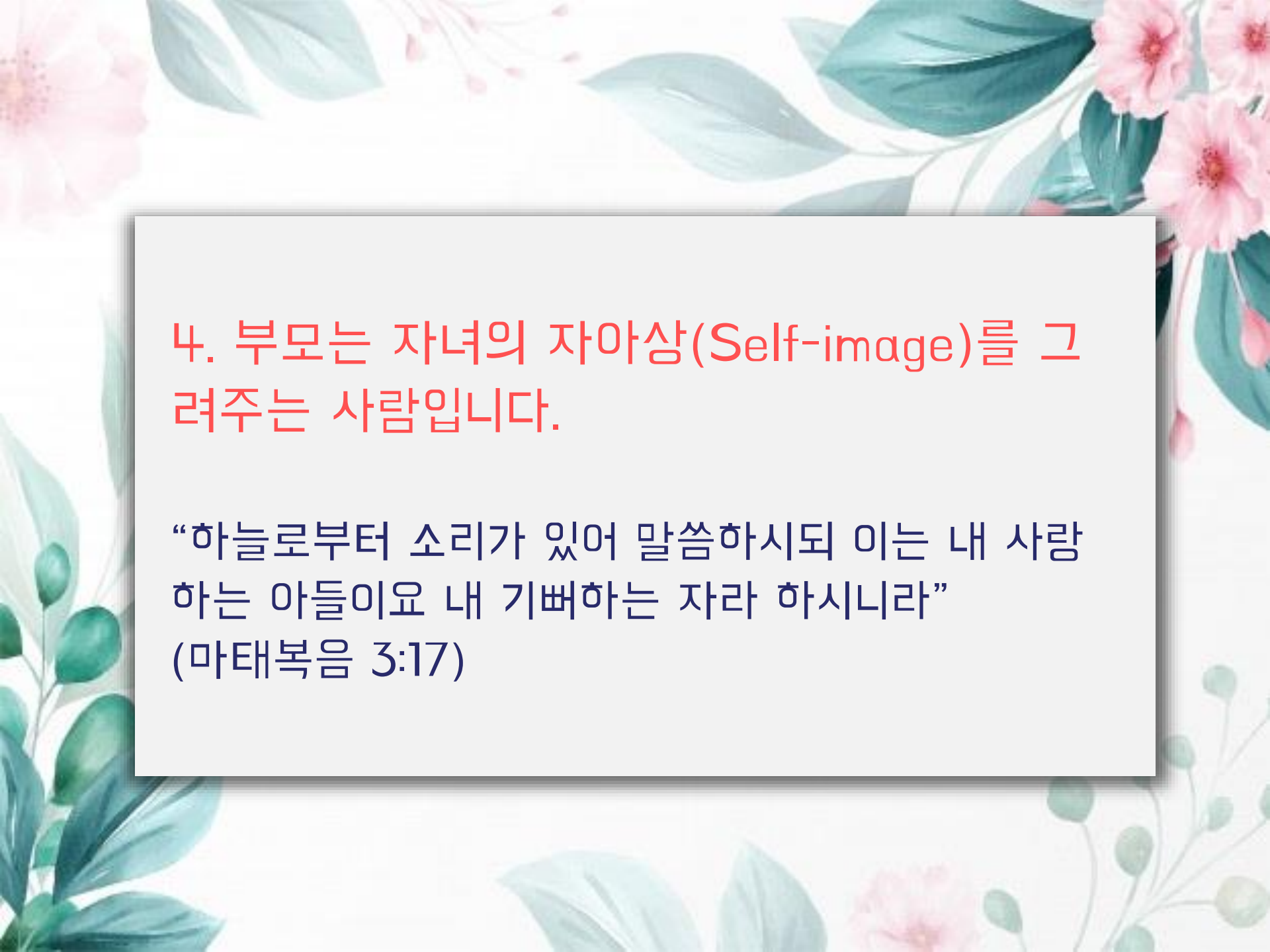


## 2. 자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배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빌립보서 3:17)

### 3.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마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4.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Self-image)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7)



## 5. 떠나보냄을 준비하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6:7)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 *Heavenly Living*

*Carpe Diem*

*Memento Mori*

*αὐτάρκης*  
(아우타르케스)



1.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2. 내 자녀의 자아상에 이미 상처가 생겼다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세요.
3. 나 자신이 어렸을 때 자유의지가 좌절된 경험과 그때의 느낌을 나누어 보세요.





4. 자녀를 향한 영적 공격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5. 또한 영적 공격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6. 떠나보냄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보세요.

